

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313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5년 9월 8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주 문

- 시민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국회와 정부,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을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고, 서울시가 운영하는 12개 시립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습 환경과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이며,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의 서울시 산하 의료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

설치할 필요가 있음.

-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의료 인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정부와 국회, 서울시에 촉구함.

3. 이 송 처

- 국회, 보건복지부장관, 교육부장관, 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

-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응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.
- 천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12개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.
-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‘차별 없는 건강한 삶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.
-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국회에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공공의료 중심의 의과대학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, 정부는 서남대 의대 인수,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의 가시적인 노력도 지속해 왔으나 서울-지방 간 의대 정원 불균형을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요청을 묵살해 왔다.
- 반면에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가칭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.

- 그러나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공공의료 체계를 조성하고,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일 시설인 국립중앙의료원보다 서울의료원 등의 12개 시립의료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다.
- 또한 공공의료만을 위한 대학을 새롭게 신설하기 보다는 교육기관과 시정 연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오면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서울시립대학교에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 분야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.
- 더욱이 서울시립대학교는 의대 신설 시 정원 중 일부를 지역기회균등 전형으로 선발하여 서울에서 질 좋은 교육을 경험하고, 각 지방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의료 인재를 확충한다는 체계를 구상하는 등 미래 청사진도 제시되어 있는 수준이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국회와 정부,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.

2025. 9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